

朝鮮 王陵 長明燈 研究

김민규*

- I. 머리말
- II. 長明燈의 의미와 燃燈
- III. 『山陵都監儀軌』의 長明燈
- IV. 朝鮮 王陵 長明燈 樣式 變化
- V. 맺음말

I. 머리말

동서고금의 모든 문화는 각기 사상과 문화의 틀 안에서 앞선 사람들의 무덤을 정성껏 꾸미고 보존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으며, 유교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性理學을 國是로 천명한 조선은 사치를 멀리하고 儉約한 생활을 중요시 했지만 무덤치레만큼은 신분에 맞게 정성을 다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는 무덤치레라는 것이 현상으로 보자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과시욕으로 보일 수 있으나 돌아가신 분들을 향한 孝라는 점에서 용인되었기 때문이다. 국왕들도 이런 점에서는 先代王의 嗣子라는 명분으로 陵地의 선택이나 석물제작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¹

왕과 왕후의 무덤인 왕릉은 석물의 격을 가장 높게 만드는데 모든 석물을 다 갖추 경우 봉분을 보호하는 屏風石과 欄干石, 永眠에 든 왕과 왕비를 수호하기 위한 武人石, 文人石, 羊石, 虎石, 陵所임을 알리는 望柱石, 魂魄이 머물 수 있는 魂遊石 등이 排設 된다. 그 중에

* 간송미술관 연구원

¹ 正祖는 아버지인 思悼世子 顯隆園을 새로 조영하면서 ‘군자는 아버지의 장례에 정성과 믿음으로 오로지 하며,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 ... 백성들이 수고롭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이 일은 그 아름다움이 극진하게 하고자 한다(『弘齋全書』권57, 『遷陵事實』)’며 최대한 현릉원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했다.

서 長明燈은 山陵祭禮時 등불을 켜는 목적과 幽冥世界를 밝힌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석조물이다.

최근 조선 왕릉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왕릉 조성시기를 再考하고, 文武人石을 중심으로 양식을 새롭게 편년하는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² 이에 반해 장명등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³ 그래서 본고에서는 장명등의 의미, 용도인 燃燈을 시작으로, 조선 왕릉 장명등의 구조 및 형식 변화를 살펴보고 시기별 양식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長明燈의 의미와 燃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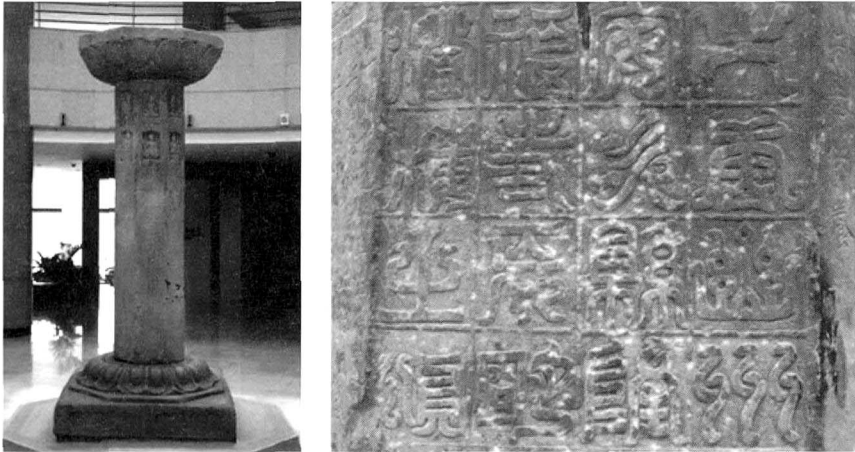
1. 長明燈의 의미

사찰에 조성된 石造燃燈具를 石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石佛, 石塔 처럼 대상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없어 재질을 바탕으로 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고, 석등은 오래전부터 長明

-
- 2 金玟圭, 「朝鮮 王陵 長明燈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金右臨, 「서울·경기지역의 조선시대 사대부 묘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김은선, 「조선후기 왕릉 문인석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_____, 「朝鮮後期 王陵 石人 彫刻 研究」, 『美術史學研究』249, 2006.
 _____, 「17세기 인,숙종기의 왕릉 조각」, 『강좌미술사』31, 2008.
 김이순, 「洪陵과 裕陵의 석물조각」, 『미술사연구』21, 2007.
 _____, 「용릉(隆陵)과 건릉(健陵)의 석물조각」, 『美術史學報』31, 2008.
 _____, 「세종대왕 '구 영릉(舊 英陵)' 석물 연구」, 『정신문화연구』32, 2009.
 김상협, 「조선 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김혜림, 「조선시대 童子石人 연구 : 16~18세기 서울·경기지역 園과 墓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장경희, 「조선 태조비 神懿王后 齊陵 연구」, 『美術史學研究』263, 2009.
 전나나, 「朝鮮王陵 石人像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_____, 「朝鮮王陵 石人像 研究」, 『東岳美術史學』12, 2011.
 조영서, 「朝鮮 前期 王陵 武石人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3 조선 능묘 장명등의 연구는 아래와 같다.
 金玟圭, 「朝鮮 王陵 長明燈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지연, 「조선 眞陵 四角長明燈 양식의 원류와 전개」, 『문화재』43, 2010.
 朴慶植, 「京畿道の 石燈에 관한 考察」, 『文化史學』18, 2002.
 鄭明鎬, 「韓國 石燈樣式史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_____, 「密山君 恭孝公 朴仲孫의 雙墳 앞 長明燈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11·12·13호 합권, 1999.

燈이라고 불렸다. 중국에서는 河北省 鄆坊市 古縣村에서 출토된 唐 688년 제작(隆福寺 長明燈樓)의 刻字를 통해, 늦어도 7세기 후반 당에서는 장명등이란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사찰에 건립된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도 1).⁴ 이후에도 장명등이란 말은 사찰의 燈을 일컫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明代에 이르러 陵墓石燈도 장명등이라고 부르고 있다.⁵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장명등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생각되지만 고려 말까지의 기록으로는 ‘石燈’이나 ‘燈龕’만이 나타난다.⁶ 長明燈이라는 용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현존 史料는 1337년 稼亭 李穀(1298-1351)이 지은 「大都大興縣重興龍泉寺碑」이다. 이 글에는 至元 3년(1337) 元의 大都 龍泉寺에 太皇太后的 명으로 佛殿을 중창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에서 나오는 稅를 長明燈의 燃燈에 사용하고, 부처님께 황제, 태후, 황후, 태자의 永命을 기원한다는 내용이 있다.⁷ 이밖에도 고려말 조선초 문인들의 글에서 장명등이라는 말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장명등은 陵墓石燈이 아닌 사찰에 건립된 燈을 지칭하고 있다.⁸



도 1 <隆福寺 長明燈樓>, 唐 688년, 石造, 높이 340cm, 中國 鄆坊博物館

4 <隆福寺 長明燈樓>, 唐 688년, 石造, 높이 340cm, 中國 鄆坊博物館
현재는 불을 밝히는 火舍 부분이 사라지고 竿柱石과 화사받침, 下臺石만이 남아있는데, 이 중 8각의 간주석에는 다양한 銘文과 佛像이 조각되어 있고 南面 중앙부에 4字4行 篆書로 ‘大唐幽州安次縣隆福寺長明燈樓之頌’이라는 題額이 있다.

5 『大明會典』, 「公主喪禮」, 1502년
‘喪聞上輟朝一日 御祭一壇 皇太后中東宮各祭一壇 各公主共祭一壇 翰林院撰祭文壇誌 戶部給齋糧一百石 工部造銘旌神主魂帛棺槨塋墳誌石寘器儀仗 順天府買辦麻布一百疋及真亭綵卓長明燈油等物...’

6 <開仙寺址 石燈>(868년)에는 ‘石燈’, <나주 석등>(1093년)에는 ‘燈龕’이라고 銘文에 刻字 되어있다.
문화재연구소 편, 『석등조사보고서Ⅱ, 이형식편』, 2001, p. 20
문화재연구소 편, 『석등조사보고서Ⅰ, 간주석편』, 1999, p. 149

7 李穀(1298-1351), 『稼亭集』卷6, 「大都大興縣重興龍泉寺碑」(1337년)

8 李穀, 『稼亭集』卷4, 「大都天台法王寺記」(1343년); 權近, 『陽村集』卷13, 「五冠山聖燈庵重創記」(1399년)

神능묘석등이 장명등이라고 기록된 것은 현존하는 자료 중 가장 앞선 것이 조선 태종 10년(1410)의 일이지만, 이미 고려말에 능묘석등을 장명등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⁹ 또 능묘석등이 등장하던 고려말에는 僧塔에도 장명등이 세워지는데 <神勒寺 普濟尊者 石鐘과 長明燈>(1372년)을 시작으로 조선초 <靑龍寺 普覺國師塔과 長明燈>(1392년), <檜巖寺 無學大師塔과 長明燈>(1407년)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佛殿이나 塔 등 사찰에서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조형물 앞에 세워지던 석등은 점차 의미가 확대되어 陵墓나 僧塔에도 건립되고, 동시에 장명등이란 이름도 능묘석등으로 전해지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寺刹 石燈의 건립이 매우 적었고, 석등 건립은 대부분 능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명등이란 말은 능묘 석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미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2. 조선 왕릉 장명등의 燃燈

장명등이란 밝게 비춘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불을 켜는 燃燈具의 기능도 했다는 것을 앞서 여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장명등과 불을 켜는 연등이 불교에서 유래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릉에서 연등하는 것을 잠시 금지하기도 했다.¹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왕릉에서 다시 燃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肅宗大王國恤謄錄』과 창틀(窓機), 換氣口를 통해 장명등의 연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겠다.

1) 『肅宗大王國恤謄錄』과 창틀(窓機)

燃燈과 관련되어 『肅宗大王國恤謄錄』(1721년) 庚子 七月 十二日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⁹ 『太宗實錄』, 太宗10年(1410年) 9月 22日(丙戌)

‘…今二陵遷葬, 宜倣孔子所善魯人榘合之制, 朱子所云同穴而各用槨之說, 石人石獸用一陵所排之數, 唯石床 長明燈, 各置之, 上從之.’

위 기록이 능묘 장명등에 관한 첫 기록이지만 14세기 초반부터 사찰 석등을 장명등으로 부르고 있었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되었다는 것은 능묘석등도 장명등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생각한다.

¹⁰ 1424년 太宗 獻陵 大祥 이후 長明燈의 燃燈을 논의하면서 장명등의 燃火(燃燈)는 옛 제도가 아니니 마땅히 없애야 하고 健元陵의 예에 따라 焚香해야 한다고 했다. 『世宗實錄』, 世宗 6年, 1424年 5月 7日 辛巳)

경자(庚子, 1720년) 7월 12일

산릉의 조석상식(朝夕上食), 주다례(晝茶禮)시 10월 21일부터 다음해(1721년) 6월 7일까지 226일 동안 ... 장명등 한곳(一坐)에서 매일 참기름(眞油) 5홉(合)씩 2말(斗) 3되(升)를 사용한다.¹¹

숙종은 1720년 6월 8일에 승하해 10월 21일 梓宮(棺)을 明陵에 安葬했으며, 1721년 6월 7일은 肅宗의 小祥日이 된다. 즉 숙종의 梓宮을 下玄宮(陵室에 安葬함)한 날부터 小祥 때까지 226일 동안 하루에 3번 제사를 지낼 때 마다 장명등에 燃燈을 했다는 것이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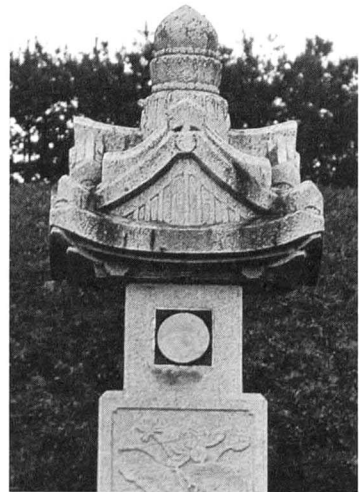
燃燈은 장명등 안에 燈蓋과 燈蓋臺를 넣은 뒤 위 내용처럼 참기름으로 불을 켜고 화창은 임시 창틀(窓機)로 막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으로만 전해지는 <明成皇后 洪陵 長明燈> (1897년, 도 3)을 살펴보면 종이를 바른 창틀이 火窓에 끼워져 있어서 조선말까지 연등이 행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창틀은 살창(箭窓)에 종이를 바른 것으로, ‘假窓機(가창틀)’이란 기록으로 보아 연등이 끝난 뒤에는 폐기했던 임시용으로 보인다. 조선 왕릉 장명등 화창에는 이 창틀을 고정할 수 있게 턱을 만들었는데 초기에는 화창 안쪽 4면을 들여 깎아 전체를 틀로 만들고, 15세기 중반 이후부터 네 모서리에만 턱을 만들어 창틀을 고정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2) 換氣口

『世宗實錄』, 『五禮儀』, 『治葬』(1454년)에서 장명등 관련 항목에 각 부재의 크기 및 문양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환기구의 구조가 설명되어있다.

中階 正中 북쪽근처에 장명등을 설치한다.(頂子石은 높이가 2척5촌으로써 上端 1척5촌을 圓首로 만든다. 2층으로 每層 아래에는 連珠를 조각하고, 下端 1척쯤을 둥글게 돌려 깎아서, 蓋石 꼭대기에 뚫어놓은 구멍에 끼



도 2 <明成皇后 洪陵 長明燈>, 1897년, 문화재청·창덕궁관리사무소편, 『日本 宮内廳 所藏 昌德宮寫眞帖』, 2006.

¹¹ 庚子 七月十二日 山陵朝夕上食晝茶禮 自十月二十一日 以明年六月初七日至 二百二十六日...長明燈一坐每日眞油五合式十一斗三升

¹² 김민규, 앞의 논문, pp. 24-25

운다. 그 둥글게 깎은 곳 4면을 오목하게 깎는데, 바닥부터 제2층에 이르게 한다. 연주사이 4곳까지 通鑿함으로써 연기가 흩어지게 한다.)¹³

이 「治葬」은 世宗 28년(1446년) 昭憲王后(1395-1446)가 昇遐하자 세종이 太宗과 元敬王后의 獻陵 서쪽에 소헌왕후와 자신이 함께 묻힐 壽陵인 英陵을 조성하면서 정리한 내용으로 이후 『國朝五禮儀』(1474년)의 기틀이 되며, 환기구의 내용은 두 기록이 일치한다.¹⁴

그래서 환기구가 최초로 만들어진 왕릉 장명등은 1446년 〈舊英陵 長明燈〉이라고 추정하는데 현재는 개석이 사라지고 없어서 실물을 확인할 수 없다.¹⁵ 이후 〈文宗 顯陵 장명등〉(1452년), 〈德宗 敬陵 장명등〉(1457년), 〈世祖 光陵 장명등〉(1468년), 〈成宗 宣陵 장명등〉(1494년) 등 총 4기에 환기구가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¹⁶

이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文宗 顯陵 長明燈〉의 환기구 구조를 살펴보면, (도 3)처럼 蓋石 內部 上下가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원통형태로 뚫려 있다. 위쪽 구멍에는 정자석 하단 축을 꽂는데 정자석 축의 사방에 상하로 홈을 파여있어 등을 켜면 연기가 개석 상하로 통착된 환기구를 지나 정자석의 홈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成宗 宣陵 長明燈〉을 끝으로 왕릉 장명등에서 환기구가 사라지게 되는데 환기구가 없어도 燃燈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환기구를 통해 빗물이 스며드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¹⁷

13 『世宗實錄』, 「五禮儀」, 「治葬」(1454년)

中階正中近北設長明燈。(頂石石高二尺五寸以上端一尺五寸作圓首。二層每層下刻連珠。下端一尺許周回圓削。納于蓋石頂之鑿孔中。其圓削處四面凹鑿。自底至第二層。連珠間四旁通鑿以散烟氣。)

14 『世宗實錄』이 완성되는 것은 1454년으로 그 2년 전 조영된 文宗 顯陵의 석물 체제와 규모가 동일해 「治葬」은 왕릉 조영의 기초자료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國朝五禮儀』가 공식편찬되기 전에 제작된 문중 현릉, 덕종 경릉, 세조 광릉 장명등에 환기구가 남아있다는 것은 『世宗實錄』 「治葬」이 15세기 왕릉 조영의 기준이 되었으며, 환기구도 이 내용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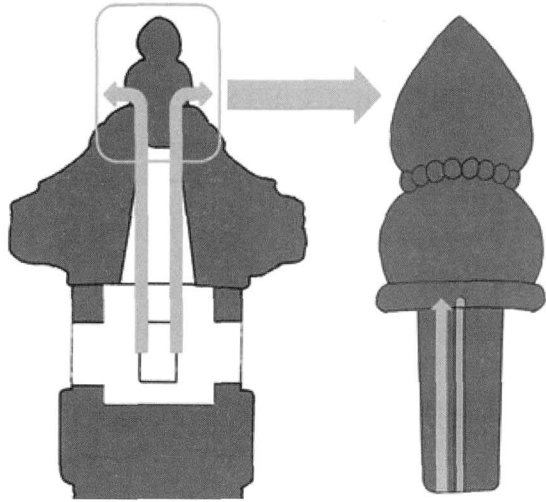
15 1446년에 제작된 英陵 석물은 대부분 1864년 純祖 仁陵 천봉시 재사용되었는데 장명등은 체석만 재사용되었으며, 개석은 행방불명이다. 아마도 개석에 환기구가 통착되어있어서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해 폐기하고 舊禧陵의 장명등 개석을 옮겨다 재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6 환기구가 있는 장명등 4기 중 文宗 顯陵(1452년), 德宗 敬陵(1457년), 世祖 光陵(1468년) 장명등은 『世宗實錄』, 「五禮儀」, 「治葬」의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내용이 法令도 아니고 환기구가 없어도 연등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던지 『國朝五禮儀』(1474년)가 완성된 이후 장명등에는 환기구가 나타나지 않는다.

17 세조 광릉, 성종 선릉 장명등에는 환기구가 제작되고 그 외에 장순왕후 공릉, 세종 영릉, 공혜왕후 순릉, 정희왕후 광릉 등에는 환기구가 제작되지 않는다. 이미 세조 광릉 조영 전후한 시기부터 환기구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종 선릉에 다시 환기구가 나타난 것은 성종의 최대 업적인 『國朝五禮儀』 편찬을 기리기 위해 능제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도 3 <文宗顯陵長明燈> 환기구 개념도



Ⅲ. 『山陵都監儀軌』의 長明燈

장명등을 비롯한 왕릉 석물의 제작과정, 참가자 명단, 소비물목 등 담겨 있는 왕릉 조성 보고서가 『山陵都監儀軌』이다. 이 『山陵都監儀軌』의 내용 중 「啓辭」는 산릉도감의 관리들이 국왕에게 올리는 장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논의, 그리고 국왕의 전교를 정리한 것이다. 또 왕릉 조성 실무를 담당하는 各所儀軌가 있는데 이중 석물제작을 총괄하는 곳이 「大浮石所儀軌」이다.

『山陵都監儀軌』의 「啓辭」와 「大浮石所儀軌」에는 長明燈의 세부 명칭을 비롯한 기초 자료와 조선 국왕과 신료들의 산릉에 대한 관심과 인식수준 까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산릉도감의례의 내용 중 장명등의 구조와 명칭에 대한 내용과 평면형태가 변하는 과정, 왕릉 석물의 體制 즉 석물의 수량과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고 이것이 석물 양식의 계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石物 再使用과 石物 簡素化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장명등과 왕릉석물의 수량 및 크기

현존하는 『山陵都監儀軌』들은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조선 전기의 왕릉 조영의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전통이 중요시 되는 왕실의 행사는 급변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 후기 의례를 분석해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왕릉 석물의 수량과 크기가 정해지는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석물의 수량과 크기의 典據를 삼고자 하는 왕릉을 정한 뒤 석물의 수량 및 크기를 奉審해 單子를 올리면 왕이 이를 열람하고 摠護使, 提調를 비롯한 대신들과 의논해 결정했다.¹⁸ 1701년 8월 4일 昇遐한 仁顯王后 明陵을 조영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월 4일 仁顯王后 昇遐

8월 14일 山陵都監 構成 - 摠護使 左議政 李世白

8월 14일 敬陵 火巢 內에 陵所로 정하게 하고 虛右之制는 長陵을 따름

8월 20일 大行王妃의 諡號를 仁顯, 陵號를 明陵으로 정하다.

8월 22일 明陵의 石物은 厚陵의 예를 따르도록 한다.

9월 1일 厚陵 石物 體制를 奉審하고 尺量한 別單을 올림.

특히 明陵 摠護使인 左議政 李世白(1635-1703)은 明陵 石物 體制를 정하기에 앞서 ‘일찍이 莊陵·思陵 改封시 下敎로 厚陵 石物의 體制가 가장 좋으니 厚陵의 예를 따라 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이후에 제도로 정해지려면 반드시 이번에도 厚陵을 따라야 하는데 健元陵을 따른 翼陵(肅宗의 첫 王后인 仁敬王后陵)은 厚陵과 크기가 같지 않으니 어찌하겠습니까’라고 했다. 이에 숙종은 ‘내가 厚陵의 體制를 반드시 사용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 이번에도 역시 厚陵의 예를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하여 明陵을 厚陵을 따르게 한다.¹⁹ 이에 厚陵 석물을 다시 尺量해 명릉 석물을 조영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해진 17-18세기 조선 왕릉 석물의 전거를 정리한 (표 1)을 보면 17세기에는 대체로 太祖 健元陵(1408년)의 석물 수량과 크기를 따라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1673년 孝宗 寧陵부터 병풍석이 제작되지 않는 17세기 왕릉들은 대부분 世宗 英陵을 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 그리고 1699년 端宗 莊陵, 定順王后 思陵부터 건원릉 대신에 定宗 厚陵

¹⁸ 김민규, 앞의 논문, p. 10

¹⁹ 『仁顯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1701년), 『啓辭』 8월 22일

領左相請對入侍時左議政李世白所啓曾於莊思陵改封時筵中下敎以爲厚陵石物體制最好一依厚陵例爲之而此後仍爲定制必令依此爲之矣今番亦當依聖教奉行而翼陵石物其時定奪以健元陵體制爲之若用厚陵之制則與翼陵石物無不同異何以爲之乎。上曰予意必欲用厚陵體制今番亦依厚陵例爲之可也。

²⁰ 1673년 孝宗 寧陵을 驪州 世宗 英陵 옆으로 遷奉하면서 屏風石을 설치하지 않는데 世宗이 儉約을 숭상해 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은 것이니 孝宗陵도 이런 德을 이어야 한다는 尤庵 宋時烈的 뜻을 따라 이후 왕릉에서 병풍석이 사라진다. (『宋子大全』卷26, 『寧陵改造議』 庚子七月三十日 ‘…夫石屏之制只爲觀美而高危難固, 終致傾拆此必然之勢也。臣竊聞英陵不用其制, 只爲土封此非後聖之所當法哉。臣意欲因此而懲前愆後, 撤去石屏諸儀, 一遵英陵遺法, 一以爲陵寢永固之計, 一以昭先王慈儉之德, 則於事於理 可謂兩得矣。…’)

이후 병풍석이 설치된 왕릉은 莊祖 隆陵(思悼世子 顯隆園, 1789년), 高宗 洪陵(1909년), 純宗 裕陵(1926년) 뿐이다.

표 1 17-18세기 왕릉의 석물 典據

王 陵	石物體制 典據 王陵
1632년 仁穆王后 穆陵	太祖 健元陵
1636년 仁烈王后 長陵	太祖 健元陵
1649년 仁祖 長陵	太祖 健元陵
1659년 孝宗 寧陵	仁祖 長陵
1673년 孝宗 寧陵 遷奉	仁宗 孝陵, 世宗 英陵(屏風石 勿設)
1674년 仁宣王后 寧陵	孝宗 寧陵(1673년)
1680년 仁敬王后 翼陵	太祖 健元陵, 世宗 英陵(屏風石 勿設)
1688년 莊烈王后 徽陵	太祖 健元陵, 世宗 英陵(屏風石 勿設)
1699년 端宗 莊陵	定宗 厚陵(石物體制大小), 德宗 敬陵(象設數)
1699년 定順王后 思陵	定宗 厚陵(石物體制大小), 德宗 敬陵(象設數)
1701년 仁顯王后 明陵	定宗 厚陵(石物尺量), 顯宗 崇陵(兩位合設例, 象設數)
1724년 景宗 懿陵	肅宗 明陵
1730년 宣懿王后 懿陵	景宗 懿陵
1739년 端懿王后 溫陵	定順王后 思陵
1757년 貞聖王后 弘陵	景宗 懿陵
1757년 仁元王后 明陵	肅宗 明陵

을 따르게 되는데 후릉은 조선 전기 왕릉 중에서 석물의 크기가 가장 작은 곳이었다. 이 厚陵 석물의 크기를 따르게 되면서 석물의 규모가 작아질뿐만 아니라 장명등의 평면형태도 8각에서 4각으로 변하게 된다.

2. 石物 再使用

石物 再使用이란 과거 능에 건립되었던 석물을 後代의 다른 능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1674년 顯宗 崇陵에 舊寧陵 석물을 사용한 것이 최초이다.²¹ 1674년 8월 18일 顯宗이 승하하고, 9월 14일에 陵地가 健元陵(태조 능, 현재 京畿道 九里市 東九陵) 서쪽에 정해졌

²¹ 1648년 恭惠王后(1456-1474) 順陵 文武人石 코가 모두 파손되는 일이 있는데 이때 석인상을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상을 들여 짚았는데 석물 재사용이라는 의미보다는 改修의 성격이 강해 필자는 석물 재사용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다. 능지가 정해진 다음날인 9월 15일 肅宗은 母后이자 顯宗妃인 明聖王后(1642-1683)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은 하교를 한다.

慈殿(명성왕후)께서 근래에 民力이 고갈되었으니 새로운 능의 石物과 役事는 다시 큰 고통이니, 寧陵의 옛석물을 새 능으로 옮겨 사용하여 백성들의 역사를 없애고자 하신다는 하교를 하시니 대신들의 뜻은 어떠한가?²²

여기에서 寧陵의 옛 석물이란 1659년에 조성한 孝宗 寧陵의 석물이며, 능은 현재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내에 있는 英祖 元陵 자리였다. 1673년 寧陵을 여주로 옮기면서 석물을 그 자리에 묻고 여주에는 새롭게 석물을 제작하는데 이때 땅에 묻었던 것을 1674년 발굴해서 다시 사용하라는 명을 내려 石物 再使用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능을 새롭게 만들 때는 물론 능을 옮길때도 석물은 다시 만들기 때문에 구영릉 석물 재사용은 더욱 파격적인 것이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1673년 효종릉을 여주로 옮기고, 1674년 2월 24일 효종비 仁宣王后가 승하해 효종릉 아래에 왕후의 능을 조성했다. 그리고 8월에 현종마저 승하해 만 1년 사이에 왕릉을 3곳이나 조성하게 된 것이다. 능 한곳을 조성하는 것도 국력을 기울이는 큰 공역이며, 더욱이 효종과 인선왕후 능의 석물은 조선 왕릉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²³ 자칫 나이 어린 숙종이 즉위해 불안정한 정국에 고된 공역으로 민심이 이반될 것을 걱정한 명성왕후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²⁴

명성왕후는 실용주의 정치성향의 潛谷 金埴(1580-1658)의 손녀이며, 아버지 淸風府院君 金佑明(1619-1675)과 사촌인 金錫胄(1634-1684)는 당시 현실론의 대표였다. 이런 명성왕후는 왕실에서부터 사치를 줄이고 절약하려는 모범을 보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왕릉 석물 재사용이었다. 또 명성왕후는 승하하기 전 國葬과 山陵 조성에 사용되는 여러 도구 중에서 쓸만한 것은 새로 만들지 말고 宮中의 물건으로 대체하고 제사에 사용되는 과일도 절반으로 줄이고 현종과 합장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물자를 아껴 백성을 보살피고 나아

22 왕릉 석물 재사용에 대한 논문이 여러편 있는데 아래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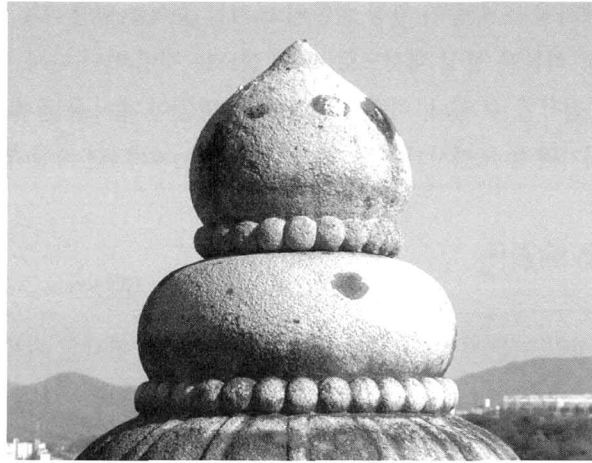
김이순, 「세종대왕 '구 영릉(舊 英陵)' 석물 연구」, 『정신문화연구』32, 2009.

23 『顯宗崇陵山陵都監儀軌』(1674), 「啓辭」

‘九月十五日 領議政 摠護使 意 山陵都監堂上引見時 上曰 慈殿以近來民力薄竭新陵石物又是役事之最鉅者欲以寧陵舊石物移用於新陵以除民役事下教矣 未知於大臣之意何如’

24 『莊烈王后 徽陵 山陵都監儀軌』(1688년), 「啓辭」

戊辰九月二十一日 都監郎廳以摠護使意啓曰 新陵各樣石物今將磨鍊始役而癸丑遷陵時則石物依孝陵例爲之故體制最大曉解風水者或以爲地家所忌爲言, 故庚申年翼陵石物則依健元陵例爲之矣.



도 4 <顯宗 崇陵 長明燈> 蓮峯, 하단 1654년 제작, 상단 1674년 수리

표 2 朝鮮 王陵 長明燈 再使用의 例

	蓋 石	體 石
1674년 顯宗 崇陵	1659년 孝宗 舊寧陵 蓋石 再使用 圓首를 새로 깎아서 끼움	1659년 孝宗 舊寧陵 體石 再使用 火舍 돌레를 최대 2cm정도 깊이로 들여깎음
1823년 綏嬪 徽慶園	1762년 思悼世子 舊垂恩墓 蓋石 再使用 改修된 곳 없음	1762년 思悼世子 舊垂恩墓 體石 再使用 改修된 곳 없음
1856년 純祖 仁陵	1515년 章敬王后 舊禧陵 蓋石 再使用 蓋石 全體를 19세기 樣式으로 改修	1446년 世宗 舊英陵 體石 再使用 火舍 上端 全體를 높이 15cm, 깊이 1cm로 깎아내고 각 면에 眼象을 새겼음
1864년 哲宗 睿陵	1834년 純祖 舊仁陵 蓋石 再使用 改修된 곳 없음	1834년 純祖 舊仁陵 體石 再使用 改修된 곳 없음

가 속중이 聖君이 되라는 뜻으로 遺敎를 남겼다.²⁵

그래서 현재 현종과 명성왕후 승릉의 魂遊石, 鼓石 4, 文人石 2, 武人石 2, 望柱臺石 2, 虎石 4, 羊石 1, 馬石 3 등은 옛 寧陵의 석물로 일부분을 고쳐서 사용한 것이며, 장명등은 體石의 상단을 수리하고, 蓋石 위 蓮峯이 부러진것을 보수한 것이다.²⁶(도 4)

²⁵ 김민규, 앞의 논문, pp. 52-53

²⁶ 『顯宗崇陵山陵都監儀軌』(1674년), 「大浮石所儀軌」

九月十七日 以 山陵始役事 堂上郎廳監造官 出往 陵所掘出石物 奉審則 魂遊石一 下塲石一 鼓石四 文石二 武石二 望柱臺石二 虎石四 羊石一 馬石三 則改琢仍用事狀 啓定奪 長明燈體石則第一層微有缺傷處 蓋石則未開峯破故初以不用之意 啓稟矣因 傳敎改鍊仍用而未開峯則新造以補之 羊石三以舊寧陵正地臺石改造其餘各樣 石物浮出

이러한 석물 재사용은 숙종이 왕릉 석물의 크기를 줄이는 왕릉석물 간소화정책의 밑바탕이 되었으며, 왕릉 석물은 항상 새것으로,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닌 다시 사용하고 규모를 줄이는 陵墓石物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왕릉 중 장명등이 재사용된 예는 (표 2)와 같으며, 장명등이 제작된 시기와 능 조영시기가 짧게는 15년 길게는 400여년 이상의 차이가 있다.²⁷

3. 王陵 石物 簡素化

조선 왕릉 조성의 기준이 되는 『國朝五禮儀』, 「治葬」에 명시된 석물들의 규모를 보면 문무인석은 높이가 9척(약 270cm), 석물 중 가장 큰 규모인 長明燈은 10척9촌(약 350cm)으로 사람의 키를 넘기고 두배 가까운 크기이다. 이런 대형석물은 돌을 浮出하고, 運送, 彫刻, 陵으로 올리는 것 등에 대규모 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肅宗의 왕릉 석물 간소화정책이 자리 잡은 仁顯王后 明陵(1701년)의 석물들은 문인석은 5척1촌, 무인석은 5척4촌, 장명등은 7척으로 석물의 크기가 1m이상 작아졌다.(표3 참조) 이로 인해 왕릉 조영에 투입되는 막대한 인력과 물자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肅宗(재위, 1674-1720)은 재위 기간 내내 왕릉 석물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한번에 석물의 크기를 줄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크기를 줄였다. 특히 석물의 크기는 肅宗이 독단적으로 줄인 것이 아니라 역대 왕릉들의 체계를 수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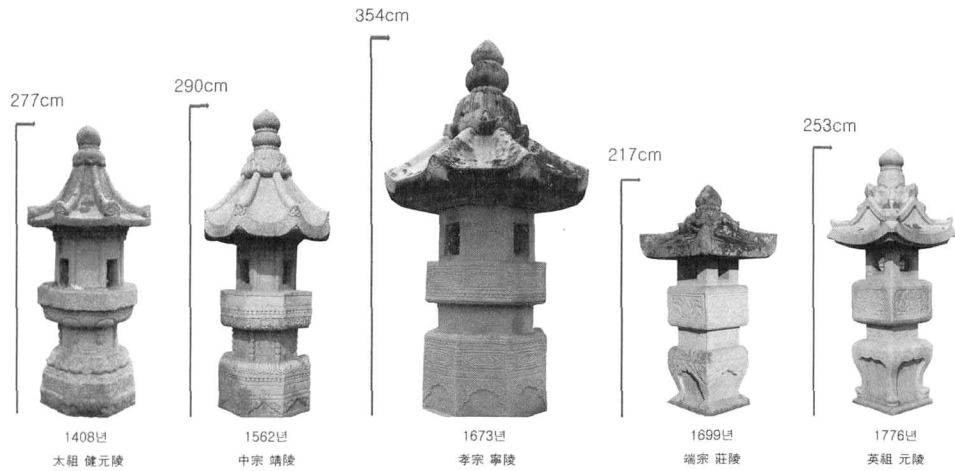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왕릉의 석물 수량이나 크기는 새로 즉위한 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새로운 능의 위치, 정치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달라지지만 역대 왕릉 중에서 範本을 정해 실측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조선 후기 왕릉 조영의 일반적인 순서이다.

이런 전례를 이어서 숙종은 왕릉 석물의 크기를 조금씩 줄여나가는데 재위 초반에는

표 3 肅宗 재위시 조영된 王陵의 文人石·長明燈의 尺數와 典據

	文人石	長明燈	典據
1474년 『國朝五禮儀』	9척	10척9촌	
1681년 仁敬王后 翼陵	7척9촌	9척3촌	太祖 健元陵
1688년 莊烈王后 徽陵	7척5촌	9척3촌	太祖 健元陵
1699년 定順王后 思陵	5척2촌	6척7촌	定宗 厚陵
1701년 仁顯王后 明陵	5척1촌	7척	定宗 厚陵
1752년 『國朝喪禮補編』	5척1촌	6척2촌	

²⁷ 김민규, 앞의 논문, pp. 40-58



도 5 朝鮮 王陵 長明燈 크기 비교

太祖 健元陵(1408년)의 석물 크기를 따라 仁敬王后 翼陵(1681년)과 莊烈王后 徽陵(1688년)을 조영한다. 翼陵과 徽陵의 석물들은 『國朝五禮儀』와 비교하면 문인석과 장명등은 각각 1척 정도 줄어든 크기였다. 다시 端宗 莊陵·定順王后 思陵(1699년)과 仁顯王后 明陵(1701년)을 조영하면서는 조선 왕릉 중 석물이 가장 작은 定宗 厚陵(1420년)을 따르게 되는데 健元陵에 비해 2척, 『國朝五禮儀』에 비해서는 4척 정도 줄어든 크기였다.

이런 숙종의 왕릉 석물 간소화 정책은 尤庵 宋時烈(1607-1689)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송시열은 왕릉 조영이 있을 때 마다 병풍석을 없애고 석물을 간소하게 제작할 것을 건의했으며, 孝宗 寧陵을 여주의 世宗 英陵 옆으로 옮기면서 어떤 석물을 건립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송시열을 孝宗陵이 世宗陵 곁에 있으므로 병풍석등을 없애 두 능의 석물을 같게 하여 검소함의 뜻을 남긴 세종대왕을 따라야한다고 했다.²⁸ 결국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왕릉에서 병풍석이 100여년간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전대 왕릉을 계승하여 석물을 바꾸는 것을 숙종이 계승해 이후 왕릉석물 간소화 때 역대 왕릉 중 석물의 크기가 가장 작은 定宗 厚陵을 따라 석물을 축소하게 되는 것이다.(도 5) 조선시대 왕릉 장명등을 시기별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석물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얼마나 經費와 民力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짐작할 수 있게 한다.²⁹

²⁸ 각주 20 참조

²⁹ 『端宗莊陵封陵都監儀軌』(1699년), 「癸巳, 戊寅十一月初十日

上曰 石物體制大小則一從厚陵, 象設之數亦依敬陵爲之可也, 判府事崔錫鼎所啓 今此封陵時 比之新陵, 則役事似有所減 至於陵上石物 亦從簡約事定奪云 而既設兩處都監 經費及民事 實多可慮.

IV. 朝鮮 王陵 長明燈 樣式 變化

조선 왕릉 장명등은 500여년에 걸쳐서 40여기가 제작된 만큼 필자는 장명등의 양식 흐름 중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는 국왕을 중심으로 총 5시기를 나누었다. 1기(1392-1506, 太祖-燕山君)는 조선의 능묘제도가 성립되는 시기로 장명등 역시 조선식으로 체제가 완성되었다. 2기(1506-1567, 中宗-明宗)는 1기에서 『國朝五禮儀』를 완성한 成宗의 직계자손들이 재위하던 시기로 <成宗 宣陵 長明燈>(1495년)을 계승한 장명등이 제작된다. 3기(1567-1674, 宣祖-顯宗)는 棋包등 건축요소가 입체적으로 표현되고, 모란, 연꽃, 당초 등이 조각되었다. 4기(1674-1724, 肅宗-景宗)는 王陵 石物 簡素化시기로 석물의 크기가 줄어들고 장명등은 평면형태가 8각에서 4각으로 변화한다. 5기(1724-1864, 英祖-哲宗)는 4기 장명등을 계승해 조형미와 장식성이 조화를 이룬 장명등이 제작된다.³⁰ 이러한 조선 왕릉 장명등의 양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표 4)

1. 1기(1392-1506, 太祖-燕山君) : 조선식 장명등 체제 성립

조선 건국 직후는 고려와 조선의 문화를 명확하게 구분짓기란 쉽지 않았다. 왕릉을 예로 보더라도 恭愍王의 명으로 恭愍王과 魯國公主의 <玄正陵 長明燈>(1374년, 도 6)을 조영한 金師幸(?-1398)은 조선 최초의 왕릉인 神德王后 貞陵(1396년)도 총책임을 맡았다.³¹ 그래서 조선 최초의 왕릉 장명등인 <神德王后 貞陵 在長明燈>(1396년, 도 7)은 고려 <玄正陵 長明燈>을 계승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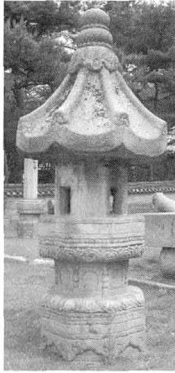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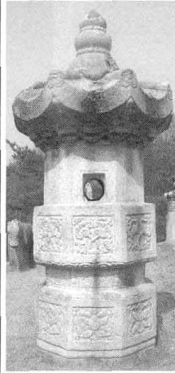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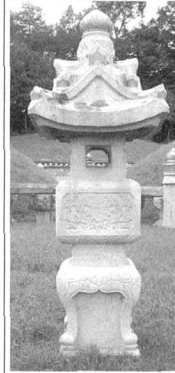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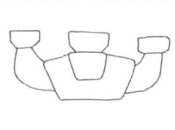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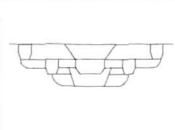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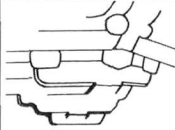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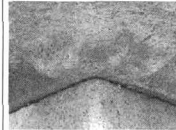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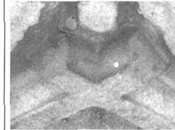














이후 太宗은 조선의 제도정비에 힘을 쏟는 한편 능묘석물에도 고려와는 다른 조선적인 조형감각을 투영시키려고 했다.³² 그래서 太祖 健元陵(1408년) 조영은 태종의 최측근인 朴子青(1357-1423)이 담당하여 조선 왕릉 장명등은 평면형태가 4각에서 8각으로 변화한다. <健元陵 長明燈>(1408년, 도 8)에서 보이는 세장한 비례, 높은 추녀마루, 蓋石 각 모서리의 귀꽃, 살짝 배부른 中臺 등은 <鳳林寺 眞鏡大師 寶月凌空塔>(923년, 도 9)과 같은 통일신

³⁰ 高宗 洪陵과 純宗 裕陵은 石物의 체제 뿐만 아니라 조각 방법 등이 역대 朝鮮王陵石物과 다르기 때문에 본고에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³¹ 김민규, 앞의 논문, pp. 27-28

³² 1408년 5월 24일 太祖가 승하하자 治喪은 『朱子家禮』를 따르고, 26일 태종이 居廬하면서 『朱子家禮』를 읽는다. (『太宗實錄』 권15, 태종8년(1408) 5월 24일, 5월 26일) 이것은 안팎으로 조선에 性理學的 禮制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표 4 朝鮮 王陵 長明燈 樣式變化

	1기 文宗 顯陵 1456년	2기 貞顯王后 宣陵 1530년	3기 仁穆王后 穆陵 1632년	4기 景宗 懿陵 1724년	5기 英祖 元陵 1776년
시기 별장 명등					
棋包					
上臺		花紋·眼象 없음			
蓮瓣					
下臺					

라말 고려초 승탑들에서 보이는 비례와 세부 문양이므로 <건원릉 장명등>제작에 심도있는 석조물 연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太宗이 고려와 조선의 차별된 미감의 장명등을 만들려고 했다면 世宗은 性理學을 기반으로 조선적 왕릉 체계를 정리하는 소임을 李藏(1376-1451)에게 맡긴다.³³ 특히 장명등 구조를 크게 바꾸는데 燃燈하기 위한 환기구를 만들고, 화사석·대석·지대석을 합쳐 하나

³³ 이때 屏風石 隅石의 金剛杵와 金剛鈴이 彩雲으로 바뀌고, 燒錢臺, 拜禮石 등이 제작되지 않게 되었다.



도 6 <恭愍王 魯國公主 玄正陵 長明燈>, 1374년,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7권, 1920)



도 7 <神德王后 貞陵 長明燈>, 1396년



도 8 <健元陵 長明燈>, 1408년



도 9 <鳳林寺 眞鏡大師 寶月凌空塔>, 923년



도 10 <舊英陵 長明燈 體石>, 1446년, 1856년 純祖 仁陵再使用, 蓋石 1515년 章敬王后 舊禧陵 再使用

의 부재인 體石을 완성시킨다.³⁴

구조적인 변화와 더불어 이전시기의 석등에서 上臺·下臺는 입체적인 仰蓮·覆蓮이었지만 세종 이후로 이 仰·覆蓮은 평탄하게 圖案化되고, 眼象이 조각된 臺石의 從屬文樣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같은 蓋石과 體石의 구조, 臺石의 종속문양으로 도안화 되는 仰·覆蓮은 조선 장명등의 특징으로 이전시기 석등과 구분지을 수 있는 요소이다.

더불어 장식문양을 대거 삽입하는데 蓋石의 龍頭, 지붕선의 簾衣, 臺石의 眼象과 당초문 양등이 그 예이다.³⁵ 이런 내용은 『世宗實錄五禮儀』, 『治葬』(1454년)에 정리되어 『國朝五禮儀』(1474년)로 거의 대부분 옮겨진다. 이렇게 세종의 뜻을 받들어 李葦이 제작한 <舊英陵 長明燈>(1446년, 도 10)은 현재 개석이 없어지고 火燭 상단이 변형된채 純祖 仁陵에 再使用 되었다.

2. 2기(1506-1567, 中宗-明宗) : 成宗 宣陵과 『國朝五禮儀』 계승

中宗反正(1506년)은 조선초기와 중기의 분수령으로 정치문화사회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왕릉미술에서도 큰 전환점이다. 中宗은 父王인 成宗의 업적을 계승하여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이를 왕릉에서는 成宗 宣陵(1495년)과 『國朝五禮儀』를 계승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成宗 宣陵은 『國朝五禮儀』의 석물체제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인근의 太宗과 元敬王后 獻陵(1420, 1422년)의 석물양식을 계



도 11 <成宗 宣陵 長明燈>, 1495년



도 12 <太宗 獻陵 長明燈>, 1422년

³⁴ 장명등 개석은 頂子石과 蓋石으로 나뉘어 있다가, 1504년 昭惠王后 敬陵 장명등에서 합쳐져 이후 계속 한돌로 조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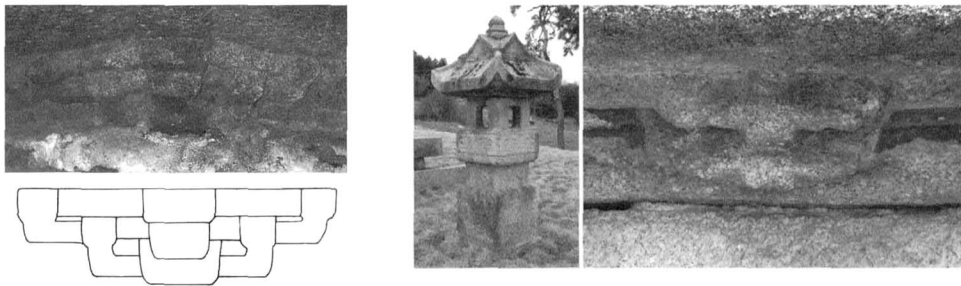
³⁵ 용두나 안상, 당초문 등은 조선초 國工이 파견되어 제작한 靑龍寺 普覺國師塔(1392년), 檜巖寺 無學大師塔(1407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승한 곳이다.³⁶ 그래서 <成宗 宣陵 長明燈>(1495년, 도 11)은 蓋石이 <太宗 獻陵 長明燈>(1422년, 도 12)처럼 상하로 길어져 세장한 느낌이 들고, 蓋石 각 모서리 끝에 如意頭가 조각되기 시작한다. 반면 세종대에 추가된 唐草나 龍頭 등의 장식 요소는 표현되지 않고 成宗의 아들과 손자들의 능인 2기 왕릉에는 이러한 장명등의 양식이 그대로 계승된다.

더불어 中期的인 특징으로 量感이 강조되는데 장명등은 문양을 깊게 새겨서 깊이감과 무게감이 느껴지게 하였다. 또 『國朝五禮儀』에 규정된 석물의 크기는 앞서도 살펴본 듯이 문무인석과 장명등은 3m 이상으로 매우 커서 이 시기 왕릉 석물이 조선시대 석물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었다.

마지막으로 1기 장명등에서는 蓋石 하단에 주두와 1단 침차, 소로 정도의 매우 소략적인 공포가 표현되다가 2기 부터는 <貞顯王后 宣陵 長明燈>(1530년)의 栱包(도 13)처럼 2단 이상의 침차와 주두 소로가 표현된 비교적 사실적인 형태의 공포가 조각된다. 하지만 공포가 3차원으로 조각된 것이 아니라 평면에 도안화된 형태라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다.

사대부묘에서는 <朴元宗墓 長明燈>(1510년, 도 14) 등에서 실물과 같은 3차원의 공포가 조각되기도 했다. 이처럼 16세기 초반부터 사실적인 조각의 의지가 커져서 蓋石의 마루나 합각, 공포 등이 실제 건축과 흡사해지는데 이것을 왕릉 장명등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입체 조각의 공정상 어려움 때문에 간략하게 평면화 했던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전반까지는 각 모서리에만 공포가 조각되어 柱心包의 모습을 보이던 것이 1560년대에 柱間包까지 표현한 多包로 변화한다.



도 13 <貞顯王后 宣陵 長明燈>의 栱包, 1530년 도 14 <朴元宗墓 長明燈>의 栱包, 1510년

³⁶ 成宗 宣陵 長明燈(1494년)은 외부의 문양이나 蓋石의 높이 등은 태종 헌릉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461년 世宗 英陵 장명등부터 이미 환기구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릉 장명등 蓋石 내부에 환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國朝五禮儀』를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 3기(1567-1674, 宣祖-顯宗) : 健元陵의 크기와 顯陵의 형태를 範本으로 新造形 모색

임진왜란 이후 왕릉 석물의 규모가 점차 작아지는데 여기에는 健元陵이 매우 큰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東九陵이라고 하는 조선 王陵群은 태조 건원릉을 비롯해 7왕 10왕후의 능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 宣祖妃 懿仁王后陵을 조영한 이래로 대체로 석물의 크기를 건원릉에 맞춘 것을 <표 1>에서 확인한바와 같이 1632년 仁穆王后 穆陵부터 1688년 莊烈王后 徽陵까지 8위의 왕릉 중 6곳이 건원릉 석물의 크기를 따르고 있다.³⁷ 태조 능이라는 상징과 더불어 이 왕릉군에서 가장 선대이기 때문에 건원릉보다 석물을 크게 만들면 외람되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석물의 크기를 줄이는 한편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데 <仁穆王后 穆陵 長明燈> (1632년, 도 15) 공포를 입체적으로 조각해서 蓋石의 상당부분이 공포로 채우거나, 眼象에 다시 不老草, 牡丹, 연꽃 등을 채우기 시작한다. 안상과 花卉文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文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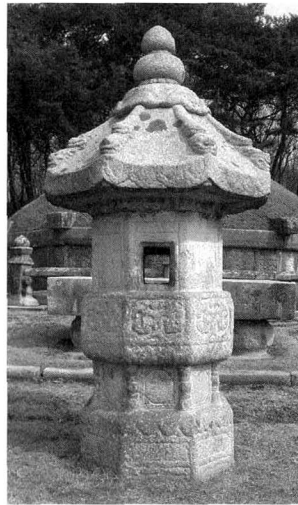
顯陵 長明燈>(1452년, 도 16)

을 따른 것이다.³⁸

장명등 蓋石이 낮고, 上中下臺 폭의 변화가 거의 없어 시각적으로 눌러있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을 장식문양으로 해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자 4기에서는 장명등의 크기를 줄이고 평면 형태를 4각으로 다시 바꾸며, 사대부묘 장명등의 조형성을 차용하게 된다.



도 15 <仁穆王后 穆陵 長明燈>, 1632년



도 16 <文宗 顯陵 長明燈>, 1452년

³⁷ 1659년 孝宗 寧陵은 仁祖 長陵을 따르는데 長陵은 健元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석물의 크기를 준수하고 있다.

³⁸ <文宗 顯陵 長明燈>은 <舊英陵 長明燈>(1446년)을 충실하게 계승하는데 舊英陵을 조영한 李藏이 사망한 뒤여서 석물의 정교함이 舊英陵에 비해 떨어지지만 換氣口가 정확하게 표현되어있고, 바로 옆의 太祖 健元陵과는 전혀 다른 조형성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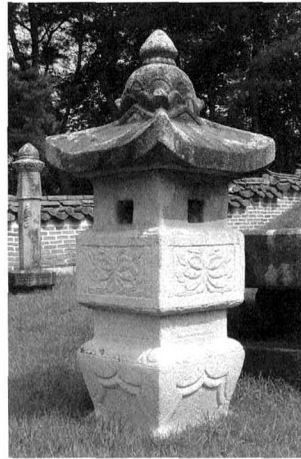
4. 4기(1674-1724, 肅宗-景宗) : 厚陵을 기준으로 石物 簡素化

숙종은 즉위하자마자 母后 明聖王后가 父王 顯宗 崇陵 석물을 재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재위 초반 仁敬王后 翼陵과 莊烈王后 徽陵을 조영하면서 健元陵 석물을 크기를 따라 왕릉 석물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 그 뒤 재위 후반 여러차례의 換局을 통해 견고한 왕권을 구축한 뒤 端宗과 定順王后를 復位하고 封陵하면서 석물 크기를 定宗 厚陵을 따르게 한다. 定宗 厚陵은 조선 역대 왕릉 석물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였을 뿐만 아니라 장명등의 평면 형태는 4각이었다.³⁹ 숙종이 장명등의 평면형태까지 바꾸라는 기록은 없지만 후릉 석물을 모두 실측해 보고했던 것을 보면 충분히 4각 장명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비용이 많이 들고 형식화된 8각 장명등의 대안으로 4각 장명등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숙종은 자신이 함께 묻힐 仁顯王后 明陵(1701년)을 조영하면서 다시 후릉 석물을 기준으로 석물의 크기를 제한하고, 이것이 景宗 懿陵(1724년)까지 이어지면서 석물의 간소화는 완성된다.(표 2 참조)

왕릉 석물 간소화의 결과로 장명등은 평면형태가 4각으로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 참고한 것이 <吳泰周·明安公主 墓 長明燈>(1686년, 도17)같은 사대부묘 장명등



도 17 <吳泰周·明安公主 墓 長明燈>, 1686년



도 18 <定順王后 思陵 長明燈>, 1699년

이었다. 평면형태가 대부분 4각인 사대부묘 장명등은 독자적으로 양식변화가 있었는데 17세기 후반에는 蓋石의 十字閣이 점차 부각되고, 上臺 각 면에는 한면씩 가득 채우는 모란이나 연꽃이 조각되고, 下臺는 탁자의 다리 형태인 雲足으로 바뀌게 된다. 8각 장명등에서는 雲足이 如意頭 형태로 하대 최하단 장식요소였던

³⁹ 정종 후릉 석물의 규모가 당시 다른 왕릉에 비해 작고 병풍석 등에 문양이 없는 것은 태종이 정종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예로 정종이라는 廟號는 사후 260여년 만인 1681년 올려진 것이다. 때문에 당시 왕릉에 8각으로 제작되던 장명등이 4각으로 조영되어 太祖 繼妃 神德王后 처럼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산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것과 전혀 다른 장명등의 구성 요소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왕릉에서 이러한 4각 장명등 양식을 수용한 뒤에는 <定順王后 思陵 長明燈>(1699년, 도18) 신속하게 균형미를 갖추며 5기 장명등으로 이어진다.

5. 5기(1724-1864, 英祖-哲宗) : 조선 후기 4각 장명등의 완성

5기는 英祖-正祖대에 조선 후기 왕릉 4각 장명등의 典型을 만들고 조형미나 장식미에 있어서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만들어지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장명등 체석의 폭을 크게 줄이고 상중하대의 폭의 변화도 크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단조롭지 않은 형태이다. 여기에 蓋石의 폭을 늘리고 지붕의 마루(용마루, 추녀마루, 내림마루)를 크게 부각시켜 실제 건물과는 다르지만 조형적으로 실재감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폭이 좁은 체석 위에 폭이 넓은 蓋石을 올려 놓기 위해 蓋石 하단을 1寸 정도 파서 체석을 끼우는 納入式 구조가 정착된다. 이렇게 장명등 전체 폭의 변화가 크고, 지붕의 마루부재가 높고, 상대 각면에 모란이 크게 새겨지고, 하대는 小盤의 다리처럼 다리와 발이 명확하게 조각되어 조형적으로 안정감 있으면서 문양이 화려한 장명등이 만들어진다. 그 대표작으로 <英祖 元陵 長明燈>(1776년, 도 19)을 꼽을 수 있으며, 4기에서 왕릉 장명등이 사대부묘 장명등의 양식을 차용해온 것과 반대로 왕릉이 사대부묘에 영향을 미쳐 <鄭民始墓 長明燈>(1800년, 도 20)과 같은 작품들도 제작되었다.



도 19 <英祖 元陵 長明燈>, 1776년



도 20 <鄭民始墓 長明燈>, 1800년

영·정조 시기는 조선 후기 장명등의 절정기로 비례, 조각기술, 문양등이 모두 뛰어난데 이는 영조와 정조라는 審美眼을 가진 군주와 사대부, 이들의 생각을 설계로 옮기고 제작하는 崔天若, 丁遇泰 등의 別看役, 그리고 실제 돌을 조각하는 金千碩, 朴弼深, 金大輝 같은 절세의 석공들이 모두 갖추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⁴⁰

정조 사후 장명등은 세부변화는 있지만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왕실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왕릉의 조영과 遷奉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석물들은 형식적으로 변하고 再使用이 크게 늘어난다.⁴¹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면 장명등 세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형식화되어 현대로 이어진다.

V. 맺음말

長明燈이란 불교에서 유래한 石造 燃燈具로 고려말에 陵墓에 건립되기 시작한 이래 조선 왕릉에 500여년간 지속 제작되었다. 燃燈기록과 換氣口, 假窓 등을 통해 조선 왕릉 장명등은 小祥 때 까지 연등하는 실제 의미와 유명세계를 밝힌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山陵都監儀軌』들을 통해 장명등을 비롯한 왕릉 석물의 크기는 국왕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다양한 정치, 경제적인 면이 고려되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옛 왕릉의 석물을 다시 사용하는 石物 再使用이나 石物 簡素化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물 재사용이나 간소화는 거대한 석물을 제작하고 운송하는데 소모되는 물자와 인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조선인들의 石物觀을 엿볼 수 있었다.

500년간 지속된 왕릉 장명등의 양식흐름은 1기에 蓋石과 體石이라는 조선 장명등의 단순한 체제가 완성되고, 이후 왕릉 석물의 기준이 되는 『國朝五禮儀』가 완성되어 그 안

⁴⁰ 영·정조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별간역과 석수의 이력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崔天若	別看役	1731년 仁祖 長陵 遷奉 屏風石 設計, 1739년 端懿王后 溫陵 石物 監董, 1752년 懿昭世孫墓 石物 監董, 1753년 淑嬪 昭寧園 石物 追排設 監董
丁遇泰	別看役	1789년 思悼世子 顯隆園 石物 監董, 1795년 華城城役 別看役, 1800년 正祖 健陵 石物 監董, 1803년 仁政殿 重建 別看役
金子碩	石手	1752년 懿昭世孫墓 石物, 1753년 淑嬪 昭寧園 石物 追排設, 1762년 思悼世子 垂恩墓
朴弼深	石手	1752년 懿昭世孫墓 石物, 1753년 淑嬪 昭寧園 石物 追排設, 1752년 貞聖王后 弘陵, 仁元王后 明陵, 1762년 思悼世子 垂恩墓
金大輝	石手	1762년 思悼世子 垂恩墓, 1776년 英祖 元陵, 1786년 文孝世子 孝昌墓, 1789년 思悼世子 顯隆園

⁴¹ 1800년부터 1863년까지 60여년 동안 1821년 正祖 健陵, 1846년 翼宗 綏陵, 1855년 翼宗 綏陵, 綏嬪 徽慶園, 1857년 純祖 仁陵, 1863년 綏嬪 徽慶園 등 총 6차례의 왕릉 천봉이 있었으며, 석물 재사용은 1822년 綏嬪 徽慶園, 1857년 純祖 仁陵, 1864년 哲宗 睿陵 등이 있었다.

에 장명등의 체제와 구조가 명시된다. 2기는 成宗 宣陵과 『國朝五禮儀』가 기준이 되어 좌우 폭이 좁은 세장한 장명등이 제작된다. 3기는 太祖 健元陵의 체제를 따라 왕릉 석물을 조성해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 또 상대·하대에 안상과 모란, 연꽃 등이 조각되고 입체적인 공포가 개석 하단에 조각되는 등 다양한 조형 실험이 이루어진다. 4기에는 조선 왕릉 석물 중 가장 규모가 작은 定宗 厚陵을 기준으로 肅宗이 왕릉 석물간소화를 단행해 석물의 크기가 줄어들고 동시에 평면형태가 4각으로 변하고, 하대의 형태가 如意頭形 雲足으로 표현된다. 5기는 조선 후기 4각 장명등이 완성되는 시기로 蓋石이 장식적으로 마루부분이 강조되고, 상대의 모란문은 도안의 구성이나 조각수준이 매우 높고, 하대는 가구의 다리형태로 바뀌어 역대 석등들과는 전혀 다른 조선의 장명등이 완성된다.

500년간 지속적으로 제작된 왕릉 장명등은 사대부묘 장명등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사대부묘 석물 연구를 비롯해 궁궐의 석조물, 나아가 불교 석조문화재의 기준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key words)_朝鮮(Joseon Dynasty), 王陵(Royal Tomb), 長明燈(Jangmyeongdeung), 山陵都監儀軌(SanreungDogamUiGwe), 石物 再使用(Stone Sculpture Reduce), 石物 簡素化(Stone Sculpture Simplification), 송시열(Song Si yeol)

■ 투고일 2012년 2월 27일 | 심사개시일 2012년 3월 10일 | 심사완료일 2012년 4월 24일 ■

참고문헌

1. 山陵都監儀軌

- 『景宗懿陵山陵都監儀軌』
- 『端懿王后溫陵封陵都監儀軌』
- 『端宗莊陵封陵都監儀軌』
- 『宣懿王后懿陵山陵都監儀軌』
- 『純祖仁陵遷奉都監儀軌』
- 『仁敬王后翼陵山陵都監儀軌』
- 『仁穆王后穆陵山陵都監儀軌』
- 『仁元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
- 『仁宣王后寧陵山陵都監儀軌』
- 『仁祖長陵遷陵時山陵都監儀軌』
- 『仁顯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
- 『莊烈王后徽陵山陵都監儀軌』
- 『貞聖王后弘陵山陵都監儀軌』
- 『定順王后思陵都監儀軌』
- 『哲宗睿陵山陵都監儀軌』
- 『顯宗崇陵山陵都監儀軌』
-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
- 『孝宗寧陵遷奉都監儀軌』

2. 史料 및 文集

- 『稼亭集』
- 『國朝五禮儀』
- 『大明會典』
- 『宋子大全』
- 『肅宗大王國恤謄錄』
- 『承政院日記』
- 『陽村集』
- 『朝鮮王朝實錄』
- 『弘齋全書』

3. 單行本

- 경기도박물관 편, 『경기 묘제 석조 미술 - 조선전기』, 2007.
_____, 『경기 묘제 석조 미술 - 조선후기』, 2008.
문화재연구소 편, 『석등조사보고서Ⅰ. 간주석편』, 1999.
_____, 『석등조사보고서Ⅱ. 이형식편』, 2001.
_____,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 Ⅰ』, 2009.
_____,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 Ⅱ』, 2011.
임민혁, 『왕의 이름, 묘호』, 문학동네, 2010.
홍선, 『석등』, 놀와, 2012.

4. 論文

- 김동욱, 「정조·순조연간 관영공사에서 별간역 정우태의 조영활동」, 『건축역사연구』16, 2007.
金玟圭, 「朝鮮 王陵 長明燈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상협, 「조선 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金右臨, 「서울·경기지역의 조선시대 사대부 묘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김은선, 「조선후기 왕릉 문인석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_____, 「朝鮮後期 王陵 石人 彫刻 研究」, 『美術史學研究』249, 2006.
_____, 「17세기 인,숙종기의 왕릉 조각」, 『강좌미술사』31, 2008.
김이순, 「洪陵과 裕陵의 석물조각」, 『미술사연구』21, 2007.
_____, 「용릉(隆陵)과 건릉(健陵)의 석물조각」, 『美術史學報』31, 2008.
_____, 「세종대왕 ‘구 영릉(舊 英陵)’ 석물 연구」, 『정신문화연구』32, 2009.
김지연, 「조선 정릉(貞陵) 사각장명등(四角長明燈) 양식의 원류와 전개」, 『문화재』43, 2010.
김혜림, 「조선시대 童子石人 연구 : 16~18세기 서울·경기지역 원(園)과 묘(墓)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朴慶植, 「京畿道の 石燈에 관한 考察」, 『文化史學』18, 2002.
안경호, 「세종대왕 초장지(舊 英陵)에 대한 재론(再論)」, 『정신문화연구』111, 2008년 여름.
장경희, 「조선 태조비 神懿王后 齊陵 연구」, 『美術史學研究』263, 2009.
전나나, 『朝鮮王陵石人像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_____, 『朝鮮王陵石人像研究』, 『東岳美術史學』12, 2011.
鄭明鎬, 「密山君 恭孝公 朴仲孫의 雙墳 앞 長明燈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 11·12·13호 합권, 1999.
鄭明鎬, 「韓國 石燈樣式史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조영서, 「朝鮮 前期 王陵 武石人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국문초록

長明燈은 불교에서 유래한 燃燈具로서 고려말부터 陵墓에 건립되기 시작해서 조선시대 陵墓石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 왕릉의 장명등은 幽冥世界를 밝힌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下玄宮(下棺) 후 小祥 때 까지 약 200여일 동안 山陵祭禮시 燃燈하는 실제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조선은 국왕들의 깊은 관심으로 왕릉 조영 보고서인 山陵都監儀軌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중 啓辭와 大浮石所儀軌에는 왕릉의 석물 수량과 크기는 국왕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석물의 수량과 크기는 『國朝五禮儀』와 『國朝喪禮補編』이 조선 전·후기의 기준이 되지만 특정한 왕릉을 선택해 따르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太祖 健元陵과 定宗 厚陵이 대표적이다.

山陵都監儀軌은 석물의 수량이나 크기뿐만 아니라 石物을 再使用하거나 簡素化하는 과정 등 조선인의 石物觀을 짐작할 수 있다. 石物 再使用은 1674년 顯宗 崇陵에 옛 孝宗 寧陵(1759년) 석물을 다시 사용하면서 시작되었으며, 肅宗은 이 석물 재사용과 尤庵 宋時烈的 사상을 받아들여 석물의 크기를 대규모 축소하는 석물 간소화를 시행한다. 이런 석물 재사용이나 간소화는 비용을 절감하고 노역을 줄여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었다.

조선 왕릉 장명등의 양식흐름은 1기(1392-1506)에 蓋石과 體石이라는 조선 장명등의 단순한 체제가 완성되고, 이후 왕릉 석물의 기준이 되는 『國朝五禮儀』가 완성되어 그 안에 장명등의 체제와 구조가 명시된다. 2기(1506-1567)는 成宗 宣陵과 『國朝五禮儀』가 기준이 되어 좌우 폭이 좁은 세장한 장명등이 제작된다. 3기(1567-1674)는 太祖 健元陵의 체제를 따라 왕릉 석물을 조성해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 또 상대·하대에 안상과 모란, 연꽃 등이 조각되고 입체적인 공포가 개석 하단에 조각되는 등 다양한 조형 실험이 이루어진다. 4기(1674-1724)에는 조선 왕릉 석물 중 가장 규모가 작은 定宗 厚陵을 기준으로 肅宗이 왕릉 석물간소화를 단행해 석물의 크기가 줄어들고 동시에 평면형태가 4각으로 변하고, 하대의 형태가 如意頭形 雲足으로 표현된다. 5기(1724-1864)는 조선 후기 4각 장명등이 완성되는 시기로 蓋石이 장식적으로 마루부분이 강조되고, 상대의 모란문은 도안의 구성이나 조각수준이 매우 높고, 하대는 가구의 다리형태로 바뀌어 역대 석등들과는 전혀 다른 조선의 장명등이 완성된다.

500년간 지속적으로 제작된 왕릉 장명등은 사대부묘 장명등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사대부묘 석물 연구를 비롯해 궁궐의 석조물, 나아가 불교 석조문화재의 기준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들이다.

Abstract

Jangmyeongdeung Lamps of Joseon Royal Graveyards

Kim Mingyu *

The Jangmyeongdeung (Chin.: changmingdeng) is a Buddhist lamp that had been in use in China, since prior to the Tang Dynasty (618-907). These lamps were placed either inside the main sanctuary of a temple or in front of a pagoda. Better known in Korea, as “seokdeung,” they are widely found not only inside temple prayer halls or in front of a pagoda, but also in graveyards. Jangmyeongdeung were placed in a king’s graveyard, starting late 14th century, which corresponds to the late Goryeo Dynasty.

While Goryeo stonemasons had worked on the graveyard of King Gongmin of Goryeo (1374), the Joseon correspondents implicated a new style of Jangmyeongdeung with octagonal cross-sections; a design had been elaborated after researching on stone graveyard structures of Silla and Goryeo. They also continued the preceding Goryeo tradition of holding Yeondeunghoe(also known as Lotus Lantern Ceremony), which was the original, practical purpose of Jangmyeongdeung.

Large portions in Gukjooryeui(Five Rites of State) proves that Joseon successors had made stone structures for royal graveyards in reduced scale. The scales had followed the most venerated rulers’ such as Taejo and Sejong because the prestige of each king who successes also depends on that predecessors. King Sukjong, meanwhile, followed the sizes of stone structures in Hureung, the graveyard of Jeongjong which was particularly unassuming and modest, and this initiative has been known as the “simplification of stone structures.”

Jangmyeongdeung were constructed for the graveyards of some forty rulers of Joseon over a period of five hundred years. Therefore, understanding the way it developed over time could also offer important insights into the styles of other Joseon stone structures such as those in royal palaces and in graveyards of the scholar-official class, as well as Buddhist stone structures in temples.

* Kansong Art Museum curator